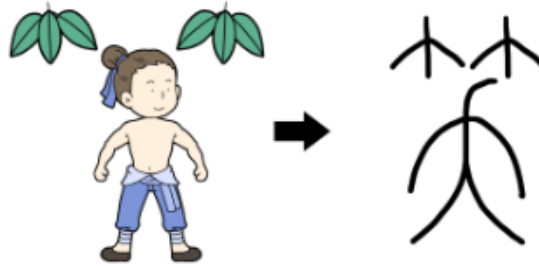


4(2)
-
111

회의문자①



笑

웃음 소:

笑자는 '웃음'이나 '웃다', '조소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笑자는 竹(대나무 죽)자와 夭(어릴 요)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夭자는 팔을 휘저으며 장난치는 아이를 그린 것이다. 笑자는 이렇게 장난치는 놀고 있는 아이의 머리 위에 竹자를 결합한 것으로 竹자는 눈웃음 짓는 모습으로 응용되었다.

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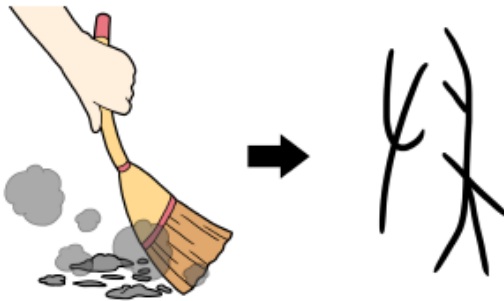
소전

笑

해서

4(2)
-
112

회의문자①



掃

쓸[掃除]
소(:)

掃자는 '쓸다'나 '제거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掃자는 手(손 수)자와 帚(비 추)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帚자는 손에 빗자루를 들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비'나 '빗자루'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래서 '쓸다'라는 뜻은 帚자가 먼저 쓰였었다. 掃자의 갑골문을 보면 빗자루를 들고 있는 𠂇 모습의 帚자가 그려져 있었다. 소전에서는 여기에 土(흙 토)자가 더해지면서 먼지를 빗자루로 쓰는 모습의 埽(쓸 소)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해서에서는 土자가 手자로 바뀌면서 마치 두 손으로 빗자루를 들고 있는 모습처럼 되었다.

掃

갑골문

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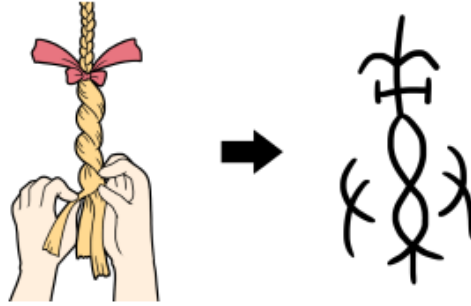
소전

掃

해서

4(2)
-
113

회의문자①



素

본디/흰[白] 소(:)

素자는 '본디'나 '바탕', '성질'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素자는 사물의 가장 원초적인 속성을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이다. 素자는 糸(실 사)자와 垂(드리울 수)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러나 금문에 나온 素자는 실타래를 뜻하는 糸자 위로 양손이 垂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누에고치에서 갓 뽑은 실타래를 묶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素자는 뽑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실을 표현한 것으로 가장 순수하고도 원초적인 것을 뜻하고 있다.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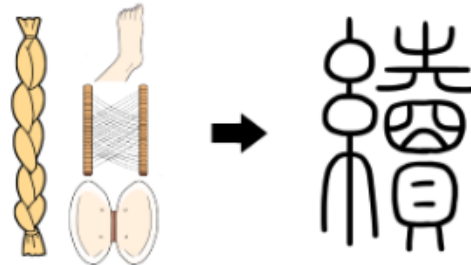
소전



해서

4(2)
-
114

회의문자①



續

이를 속

續자는 '잇다'나 '계속하다', '이어지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續자는 糸(가는 실 사)자와 賣(팔 매)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續자는 무언가가 지속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다. 그래서 물건을 '팔다'라는 뜻을 가진 賣자를 응용해 무언가가 지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뜻하고 있다. 내가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먼저 남의 물건을 사들여야 한다. 그러니 續자는 물건을 사고파는 것이 끊임없이 되풀이되듯이 실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뜻을 전달하고 있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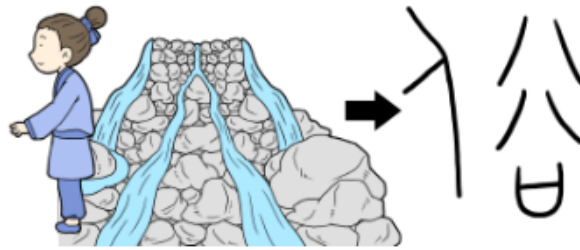
소전



해서

4(2)
-
115

회의문자①



俗

풍속 속

俗자는 '풍속'이나 '관습'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俗자는 人(사람 인)자와 谷(골 곡)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풍속'이나 '관습'은 예부터 전해오는 생활 전반의 습관이나 버릇을 말한다.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함을 지니고 있기에 이것을 풍습이라고 한다. 그래서 俗자는 산골짜기(谷)가 가른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의 풍습을 가진 사람(人)들이 있다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俗자는 지극히 평범한 습관을 뜻하지만 때로는 저속하고 품위 없는 것을 일컫기도 한다.

習

금문

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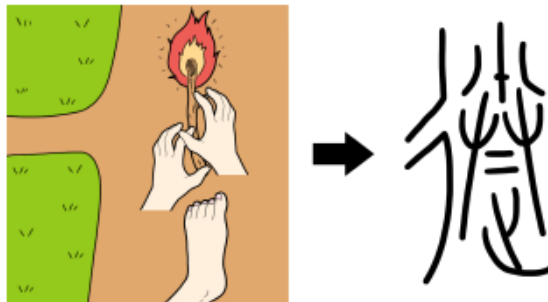
소전

俗

해서

4(2)
-
116

회의문자①



送

보낼 송:

送자는 '보내다'나 '전달하다', '배웅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送자는 辵(쉬엄쉬엄 갈 착)자와 爿(불씨 선)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爿자는 양손에 불씨를 들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불씨'라는 뜻이 있다. 이렇게 불씨를 그린 爿자에 길을 그린 辵자가 결합한 送자는 불씨를 들고 길을 나서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이것은 손님이 돌아가는 길을 밝혀 안내한다는 뜻이다.

送

금문

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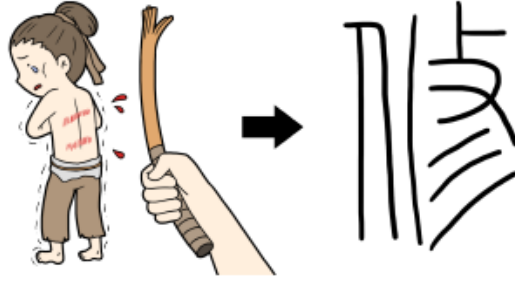
소전

送

해서

4(2)
-
117

회의문자①



修

닦을 수

修자는 '닦다'나 '연구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修자는 攸(바 유)자와 彡(터럭 삼)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攸자는 몽둥이로 사람을 때리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修자는 이렇게 사람을 때리는 모습을 그린 攸자에 彡자를 더한 것으로 여기에서 彡자는 땀이나 피를 흘리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니 修자는 누군가를 피가 나도록 때리는 모습을 그린 것이라 할 수 있다. 修자는 본래 누군가를 '다스리다'라는 뜻으로 만들어진 글자였다. 그러나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도덕이나 품행을 '기르다'라는 뜻이 파생되면서 지금은 '닦다'나 '연구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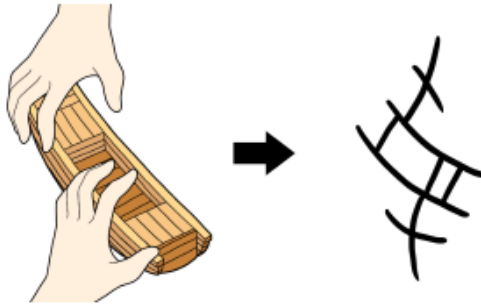
소전

修

해서

4(2)
-
118

회의문자①



受

받을 수(·)

受자는 '받다'나 '얻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受자는 冫(손톱 조)자와 冫(덮을 먹)자, 又(또 우)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러나 갑골문에 나온 受자를 보면 舟(배 주)자 위아래로 손이 攴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배에서 물건을 건네주거나 받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사실 갑골문에서의 受자는 '받다'나 '주다'의 구별이 없었다. 그러나 소전에서는 이를 구별하기 위해 受자는 '받다'라는 뜻으로 扌(손 수)자가 더해진 授(줄 수)자는 '주다'라는 뜻으로 분리되었다.

受

갑골문

受

금문

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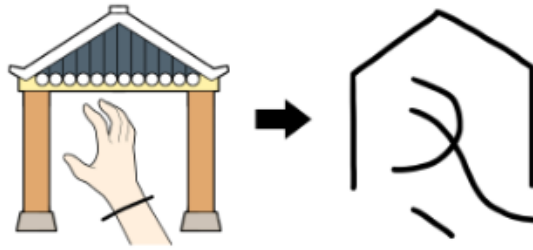
소전

受

해서

4(2)
-
119

회의문자①



守

지킬 수

守자는 '지키다'나 '다스리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守자는 宀(집 면)자와 寸(마디 촌)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寸자는 又(또 우)자에 점을 찍은 것으로 '법도'라는 뜻을 갖고 있다. 금문에 나온 守자를 보면 집안에 寸자가 그려져 있었다. 마치 손톱을 날카롭게 세운 듯한 모습이다. 이것은 집을 '지킨다.'라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守자는 본래 '보호하다'나 '지키다'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그러나 후에 寸자가 가지고 있는 '법도'라는 의미가 확대되면서 '다스리다'라는 뜻도 갖게 되었다.

守

금문

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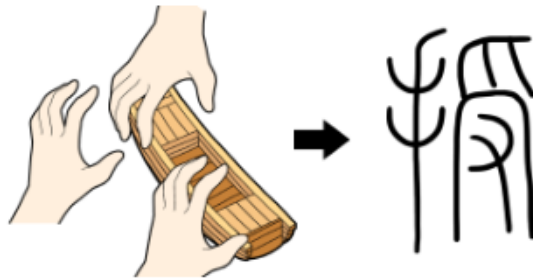
소전

守

해서

4(2)
-
120

회의문자①



授

줄 수

授자는 '주다'나 '수여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授자는 手(손 수)자와 受(받을 수)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受자는 배에서 물건을 하역하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받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전에는 受자가 물건을 주거나 받는다는 뜻으로 쓰였었다. '주다'와 '받다'의 구별이 없었다. 그래서 소전에서는 이를 구별하기 위해 受자는 '받다'로 여기에 手자가 더해진 授자는 '주다'를 뜻하게 되었다.

授

소전

授

해서